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006454-14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2022.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전 기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종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난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 우 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선 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 진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노 우 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3
II. 추진경과	5
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2017년)	7
2.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2017~2019년)	8
가. 2017년 지수 산출	8
나. 2018년 지수 산출	11
다. 2019년 지수 산출	14
III.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17
1.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19
2. 2020년 및 2021년 지수 비교	32
가. 총점	32
나. 영역별 점수 변화	35
IV. 결론	51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53
2. 정책제언	54
가. 전년 대비 감소 지표 개선 사업 추진	54
나. 지표 체계 개선 검토	54
다. 남녀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가칭) 실시	54

■ 참고문헌	55
■ 부 록	57
[부록] 영역별 점수 산출 과정	59

그림 목 차

[그림 III-1]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21
[그림 III-2]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21
[그림 III-3]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22
[그림 III-4]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22
[그림 III-5]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23
[그림 III-6]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4
[그림 III-7]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6
[그림 III-8]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28
[그림 III-9]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
[그림 III-10]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35
[그림 III-11]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37
[그림 III-12]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41
[그림 III-13]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44
[그림 III-14]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	47

부 표 목 차

[부표 1]	일 영역(1)	59
[부표 2]	일 영역(2)	60
[부표 3]	생활 영역(1)	61
[부표 4]	생활 영역(2)	62
[부표 5]	생활 영역(3)	63
[부표 6]	제도 영역(1)	64
[부표 7]	제도 영역(2)	65
[부표 8]	제도 영역(3)	66
[부표 9]	지자체 관심도 영역(1)	67
[부표 10]	지자체 관심도 영역(2)	68

I

서론

- | | |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부가 국정과제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 추진함에 따라 일·생활 균형의 정책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일·생활의 균형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도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일·생활 균형 정책을 지방정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지역 수준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를 통해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개발하고,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의 통계값을 바탕으로 지자체 관심도 영역을 포함한 전체 영역의 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부터는 관련 통계자료가 미비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이나 활용,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등과 같은 일부 지표에 대해서 전국 5,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결과값을 활용함으로써 전체 지표의 지수값을 산출해 오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지역에서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완비된 통계자료를 통해서 지수를 산출하는 네 번째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영역별 지수산출을 위해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지수 산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진 검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수를 산출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를 2020년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추진 경과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
- 지수 산출(2017~2019년 기준)

4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 2021년 기준 지수 산출
 - 2021년 기준 통계자료 수집
 - 지자체 관심도 측정을 위한 관련 조직 및 조례 자료 수집
- 전년도 비교
 - 영역별 비교
 - 지역별 비교
- 정책제언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 수집(지표별 조사통계자료 및 행정데이터)
- 지자체 자료 수집(관련 조직 및 비상설기구, 관련 조례 등)
- 전문가 자문

II

추진경과

- | | |
|--------------------------------------|---|
| 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2017년) | 7 |
| 2.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2017~2019년) | 8 |

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2017년)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지역단위로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내외 일·생활 균형(혹은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및 통계자료 등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된 본 지표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총 26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구성된 각 영역과 세부지표에 적용될 가중치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

〈표 II-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영역 (1계층)	지표(2계층)		가중치 2017	가중치 2018
일	총근로시간		0.071	0.071
	초과근로시간		0.044	0.044
	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0.030	0.030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0.028	0.028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0.048	0.048
생활	여성 가사노동 시간	→ 남성 가사노동 시간 비중(가사노동 시간 분담률)	0.025	0.050
	남성 가사노동 시간		0.062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0.025	0.03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0.031	0.036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0.041	0.048
	여가시간(평일)		0.026	0.030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0.034	0.039
	일 - 여가생활 균형 정도		0.058	0.068
제도	여성 육아휴직 이용→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0.040	0.040
	남성 육아휴직 이용→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0.054	0.0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0.028	0.028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수→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0.025	0.025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0.048	0.048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0.033	0.033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0.021	0.021

8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영역 (1계층)	지표(2계층)	가중치 2017	가중치 2018
지자체의 관심도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0.045	0.049
	지자체장의 의지→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0.077	0.083
	담당조직 유무	0.052	0.057
	일·가정 양립 관련 회의·교육·행사 개최→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0.016	0.017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현황	0.020	0.021
	맞벌이부모 우대제도 유무	0.018	-

자료: 홍승아 외,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 고용노동부, p. 66 <표 IV-4>; 전기택 외,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pp.157-164 <부표 1>~<부표 8>

2.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2017~2019년)

가. 2017년 지수 산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의 통계값을 바탕으로 지자체 관심도 영역을 포함한 전체 영역의 지수를 산출하였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 시·도 담당공무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수 산출식 등을 변경하였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 대해 확정된 지표 및 산출식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자료제출 요청 및 전문가 검증과, 검증 결과에 대한 시·도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지자체장 의지, 일·가정 양립 관련 회의·교육·행사 개최는 지표 유지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자료가 지수를 산출하기에 불충분하여, 해당 지표의 지수값을 산출하지 않았다. 이에 최종 적용된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별 산출식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별 산출식

지표명	산출식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지원&기업지원 명시: 1.00점 •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지원 명시: 0.75점 •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기업지원 명시: 0.75점 • 가족친화, 성평등 등 관련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 지원&기업지원 명시: 0.50점 • 가족친화, 성평등 등 관련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 지원 명시: 0.25점 • 가족친화, 성평등 등 관련 조례 제정&기업지원 명시: 0.25점 • 일·생활 균형 등 관련 조례 없음: 0.00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자체장 의지	-
담당조직 유무	- 담당조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에 일·생활 균형과(팀) 설치: 1.00점 • 시·도청 관련과(팀)를 설치하고, 2명 이상의 전담 공무원 배치: 0.75점 • 시·도청 관련과(팀)를 설치하고, 1명 이하의 전담 공무원 배치: 0.50점 • 외청, 사업소에 담당 조직 설치: 0.25점 • 담당 조직 또는 담당자 없음: 0.00점 ※ 시·도청 담당 조직 이외에 일·생활 균형, 일·가정양립 관련 센터, TF,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해당 조직형태별로 0.02점 부여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시설제공률=공연전시시설~공공체육시설 수/인구수(17.7.1 주민등록인구)*1,000

자료: 전기택 외,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p. 120 〈표 V-2〉

2017년 지수산출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 영역의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은 현재 해당 지표의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해당 지표의 지수값을 산출하지 않았다. 또한 시·도 조사 결과, 맞벌이부모 우대제도 유무는 지표에서 제외하였고, 생활 영역의 남성 가사노동시간과 여성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남녀 가사노동시간 중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으로 지표를 변경함으로써 지표수가 26개에서 24개로 줄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영역의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사업체 수준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업체)으로 변경하였다.

〈표 II-3〉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산출 현황

영역		지표명	산출 여부	미산출 사유
일 (5개)		총근로시간	○	-
		초과근로시간	○	-
		휴가기간(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	-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	자료 미생산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	자료 미생산
생활 (7개)	가족 (4개)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	-
	여가 (3개)	여가시간(평일)	○	-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	-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	-
제도 (7개)	여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	-	
	남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행기업)	○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	자료 미생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	-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	-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	-	
지자체의 관심도 (5개)	일·생활 균형 조례 여부	○	-	
	지자체장의 의지	×	자료 불충분	
	담당조직 유무	○	-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	자료 불충분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	-	

자료: 전기택 외,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p. 120
 〈표 V-2〉

나. 2018년 지수 산출

1) 자료원 및 지표 생산방식 개선

2018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을 위해 자료원 및 지표 생산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17년 지수 산출 당시 자료가 불충분하여 생산하지 않았던 ‘일 영역’의 유연근무제 도입률,¹⁾ 유연근무제 이용률, ‘제도 영역’의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에 대해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사업체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표도 사업체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도입 및 이용률 역시 사업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값 이용 지수산출방식

지표	산출식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1개 이상의 유연근무제 제도 도입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1명 이상의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1명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가 있는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자료: 강민정 외,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고용노동부, p. 11 <표 II-1>

다음은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 중 역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지표와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지자체장의 의지’²⁾는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 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는 유연근로제도를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유연성에 따라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이상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근로)와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이상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로) 등 총 6개 제도로 분류해 조사하였는데, 지표의 유연근로제 도입률은 전체 사업체 수 대비 6개 제도 중 1개 이상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로 정의하였음.
- 2) 지자체장의 의지를 시·도 본청의 ‘일·생활 균형 관련 예산’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일·생활 균형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여성가족 관련 부서 예산을 중심으로 자료가 취합됨에 따라 추후 평가에서 별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7년 기준 평가에서는 지수값을 산출하지 않음.

12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노력'을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사업체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개선해 보기 문항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D13. 귀사는 지난 해(18.1.1~18.12.31) 지자체로부터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규정,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 | | |
|-----------------|--------------------|
| ① 5회 이상 → 1.00점 | ② 3~4회 → 0.66점 |
| ③ 1~2회 → 0.33점 | ④ 받아본 적 없다 → 0.00점 |

* 산출식(안)=시도별 해당 지역 사업체 평균 점수 산출*100(점)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은 2017년 기준 산출 당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실적을 수집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마찬가지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사업체를 통해 지난 1년간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D14. 귀사는 지난 해(18.1.1~18.12.31) 지자체로부터 일·생활 균형과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 산출식(안)=지자체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경험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2) 표준화 방식 및 기준값 설정

표준화 방식은 기준값 거리(Distance to a reference)에 따른 표준화를 통해 기존 통계값을 0~1 사이의 값(도달률)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통계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는 휴가기간,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자 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담당조직 유무,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아래의 식 (1)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I_p = \frac{\text{해당 지자체 통계값}}{\text{기준값}} \quad (1)$$

반면 기존 통계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는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일·가족생활 우선도,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등으로 아래의 식 (2)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I_n = \frac{\text{기준값}}{\text{해당지자체 통계값}} \quad (2)$$

다음으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별 기준값은 총근로시간, 휴가기간, 남성 가사노동 시간 비중, 여가시간충분도, 담당조직 유무 등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통계 등 가용한 기존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MS-EXCEL의 추세(trend) 함수를 활용하여 추정된 2023년 예측값 등을 적용하였고,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는 통계값 자체가 0~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표준화를 하지 않고, 기존 통계값을 적용하였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남녀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값을 활용하는 지표의 경우 통계값이 충청남도과 합쳐져서 충청남도 값으로 발표되므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값을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2018년 지수 산출과 관련하여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표 ('유연근무제 도입률', '유연근무제 활용률',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안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값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는 과거값 축적이 미비하여 추세함수를 이용한 2023년 추정치를 활용할 수 없고, 이상적인 통계값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표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조사 결과의 최대값에 15%를 가산한 값³⁾으로 적용하였다.

3) 기준값(안)(공통)=2018년 최대값+(2018년 최대값*0.15)

다. 2019년 지수 산출

1) 주요 쟁점

2019년 지수 산출을 위해 대체로 2018년 지수 산출 당시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였다. 다만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부 지표의 통계값이 미비했고 통계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9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통계값을 2019년 기준으로 수집해야 한다. 특히 통계청 『사회조사』의 경우 홀수 해와 짝수 해의 조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 중 홀수 해 조사항목에 해당하는 통계값들은 모두 업데이트해야 한다.

문제는 지표 중 조사항목에서 2019년에 제외된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조사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이다. 2017년까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는 총 7개의 제도(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지원, 가족돌봄휴직제,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있다’와 ‘모른다’ 두 개의 응답 중 고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전에는 13세 이상 인구로 제한하여 ‘알고 있다’에 ‘1’, ‘모른다’에 ‘0’을 부여하여 값을 모두 합한 후 7로 나누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 값의 지역별 평균값을 통계값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사회조사를 대체할 자료원을 새로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업체 조사이긴 하지만 제도 인지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수 산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인지도 항목 중 사회조사와 일치하는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 등 총 5개 항목이다.

〈표 II-5〉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조사 통계 차이점

구분	통계청 『사회조사』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대상	일반 국민	사업체 인사담당자
인지도 대상 제도	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지원, 가족돌봄휴직제, 유연근무제	출산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
응답 척도	‘알고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문제는 사회조사와 다르게 각 항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등 4점 척도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알고 있다’의 범위를 어느 척도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이에 2017년 사회조사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와 관련한 지역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다음의 <표 II-6>과 같이 각각의 시나리오별 값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값이 가장 근사한 시나리오 2에 따라 통계값을 산출하였다.

<표 II-6> 시나리오별 평균값 비교

시나리오(제도 '인지'=1)		2017년 기준 통계청 『사회조사』	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1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60.5점	84.6점
#2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65.1점
#3	잘 알고 있다		40.7점

다음은 일부 지역에 대해 통계값이 기준값을 초과하여 도달률이 '1'을 초과한 곳이 일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예상보다 기준값에 빨리 도달한 곳으로,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지표의 강원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지표의 서울시와 세종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지표의 서울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사업체 비율 지표의 충청북도 등이다. '1'을 초과한 경우는 도달률을 '1'로 고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2) 지수 산출과정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각 지표별 통계값을 2019년 기준 최근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또한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실시하였는데, 일·생활 균형 관련 담당조직(비상설 기구 포함)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관련 조례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수집하였다.

지역별 지표점수와 지역별 영역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 지역별 지표점수 산출=표준화 값×종합가중치
- 지역별 영역점수 산출=각 영역 지표점수의 합×100

〈표 II-7〉 지표별 자료원 및 기준값(2019년)

영역	지표명	자료원	기준값	비고	
일 (5개)	총근로시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세종, 충남 통합)	150시간	1,800시간/12개월	
	초과근로 시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세종, 충남 통합)	2.0시간	2023년 추정값	
	휴가기간(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국민여가활동조사	15일	2017년 근로자 평균연차 휴가부여일수(15.1일)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36.4%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21.6%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생활 (7)	가족 (4개)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생활시간조사(공표주기 5년)	0.5	남성 가사노동시간 /전체 가사노동시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홀수해)	81.2%	2023년 추정값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짝수해)	74.1%	2023년 추정값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사회조사(홀수해)	12.5%	2023년 추정값
	여가 (3개)	여가시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5.69시간	2023년 추정값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100점	7점 만점 기준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국민여가활동조사	10.0%	2023년 추정값
제도 (7개)	여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2.60%	2023년 추정값	
	남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0.59%	2023년 추정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행기업)	고용보험DB	0.37%	2023년 추정값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9.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보육통계	25.6%	2023년 추정값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학교알리미	24.9%	2023년 추정값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81.6점	2023년 추정값	
지자체 관심도 (5개)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1.0점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근로자(시민) 및 기업지원 명시 만점(1점)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19.9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담당조직 유무	시·도 홈페이지(조직도) 및 관련 자료	1.1점	담당조직 형태 만점(1점)+ 관련 조직 5개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13.8%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등	28.06개 (단위 천 명)	2023년 추정값	

Ⅲ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 1.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19
- 2. 2020년 및 2021년 지수 비교 32

1.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국 평균은 54.7점(100.0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56.5점, 도 평균 53.0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점수는 각 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에 2021년 현재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영역별로 기준값 도달 정도(영역별 총점 대비 전국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생활 영역 54.5%, 지자체 관심도 영역 38.6%, 일 영역 59.7%, 제도 영역이 64.8%로 제도 영역의 도달률이 가장 높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도달률이 가장 낮았다. 총점 기준으로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평가하는 일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13.2점(22.1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 도 평균 13.0점으로, 대전, 서울, 제주, 세종, 부산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녀 가사분담,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여가, 일과 가족생활 중 우선도 등을 평가하는 생활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16.4점(30.1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 도 평균 16.5점으로, 제주, 부산, 광주, 울산, 경남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보육 및 초등 돌봄교실 등 제도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제도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16.2점(25.0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 도 평균 15.1점으로, 서울, 세종, 부산, 대전, 충남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8.8점(22.8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9.3점, 도 평균 8.4점으로, 부산, 세종, 경남, 경기, 전남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Ⅲ-1〉, [그림 Ⅲ-1]~[그림 Ⅲ-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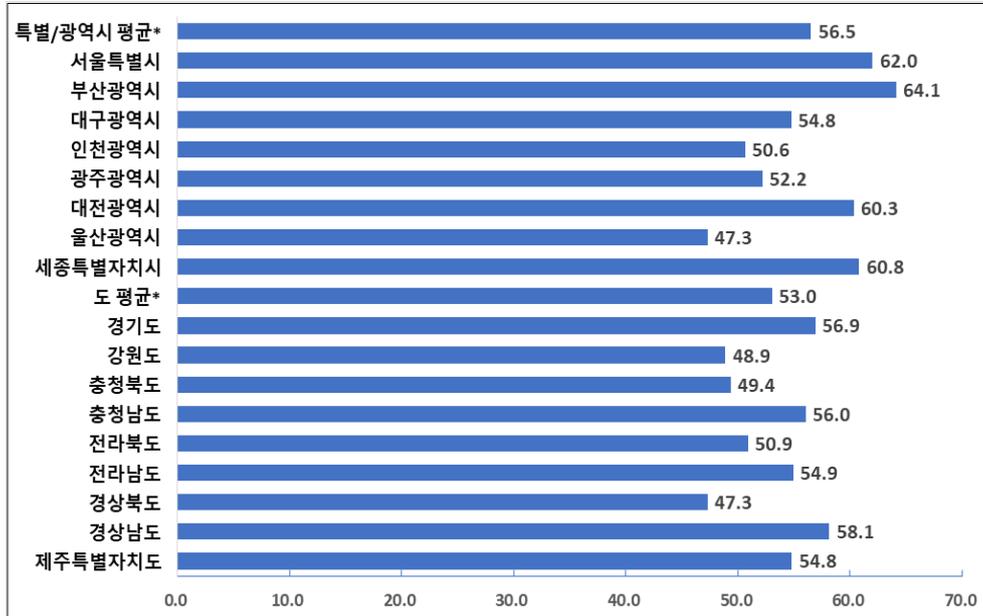
〈표 III-1〉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단위: 점)

순위	총점 (100.0점)		일 (22.1점)		생활 (30.1점)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전국	54.7	전국	13.2	전국	16.4	전국	16.2	전국	8.8
	특별/ 광역시	56.5	특별/ 광역시	13.5	특별/ 광역시	16.3	특별/ 광역시	17.5	특별/ 광역시	9.3
도	53.0	도	13.0	도	16.5	도	15.1	도	8.4	
1	부산	64.1	대전	16.1	제주	21.1	서울	20.3	부산	13.9
2	서울	62.0	서울	15.9	부산	18.2	세종	18.8	세종	12.7
3	세종	60.8	제주	14.5	광주	16.7	부산	18.2	경남	12.7
4	대전	60.3	세종	13.9	울산	16.6	대전	18.0	경기	12.6
5	경남	58.1	부산	13.8	경남	16.6	충남	17.9	전남	11.3
6	경기	56.9	전남	13.7	충북	16.5	대구	16.6	대전	10.0
7	충남	56.0	충남	13.5	전북	16.3	경남	16.4	대구	9.5
8	전남	54.9	대구	13.5	서울	16.3	울산	16.3	서울	9.5
9	제주	54.8	강원	13.3	대전	16.2	광주	16.1	충남	8.9
10	대구	54.8	경기	12.9	강원	16.0	인천	15.6	인천	7.2
11	광주	52.2	광주	12.9	경기	15.9	경기	15.6	제주	7.2
12	전북	50.9	전북	12.8	충남	15.7	전북	15.3	충북	6.9
13	인천	50.6	경북	12.7	전남	15.7	강원	15.1	광주	6.6
14	충북	49.4	경남	12.5	인천	15.7	충북	14.7	전북	6.5
15	강원	48.9	인천	12.1	세종	15.4	경북	14.6	경북	4.9
16	울산	47.3	충북	11.3	대구	15.1	전남	14.2	울산	4.6
17	경북	47.3	울산	9.8	경북	15.1	제주	12.0	강원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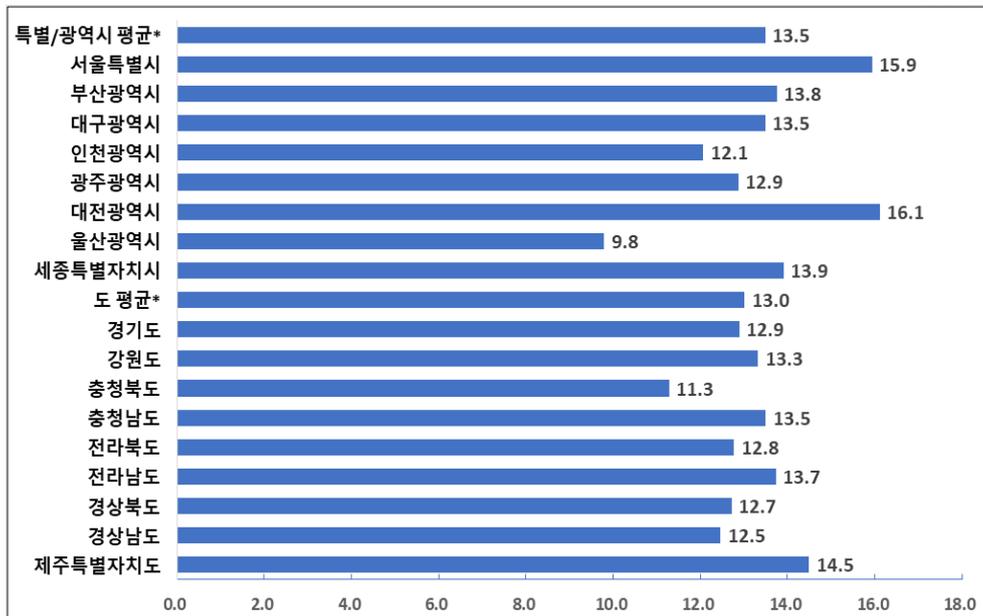
Ⅲ.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21

(단위: 점)



[그림 Ⅲ-1]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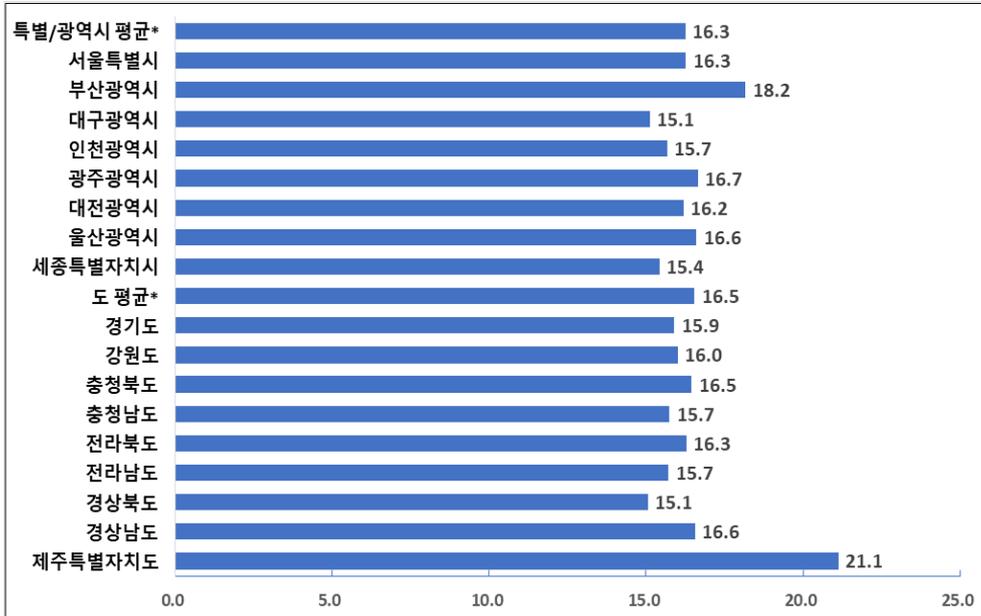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Ⅲ-2]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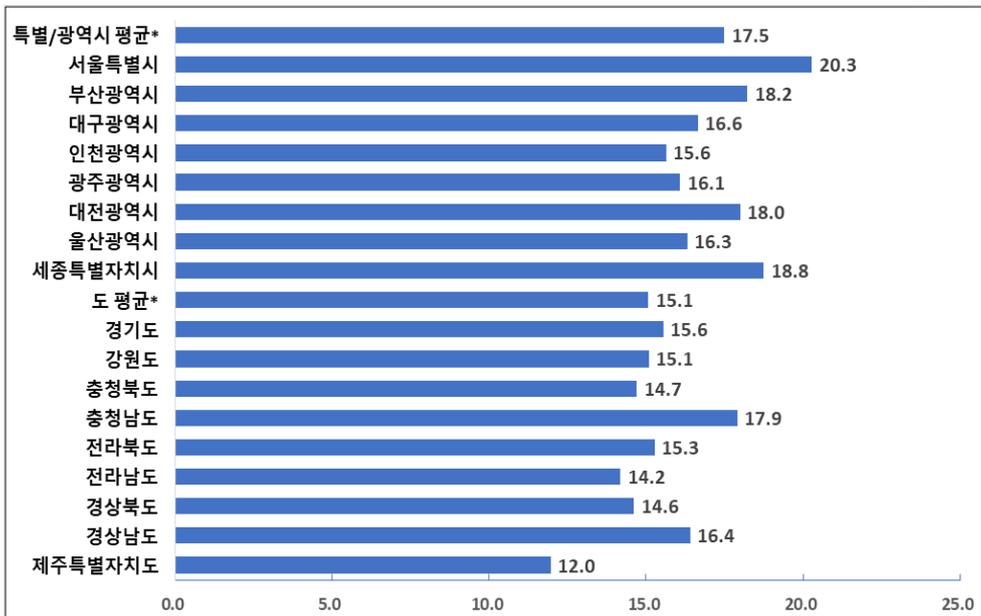
22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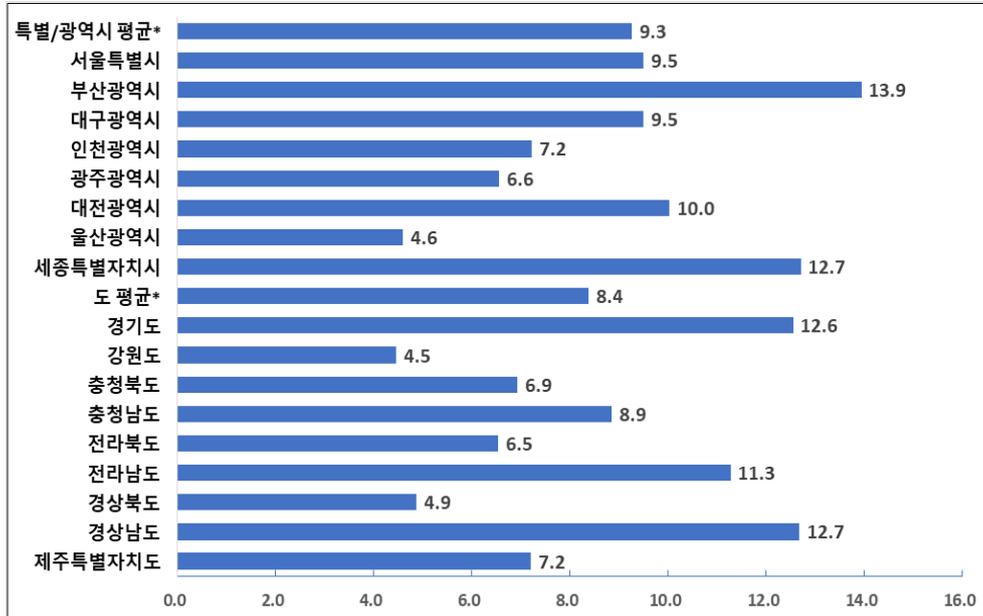
[그림 III-3]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단위: 점)



[그림 III-4]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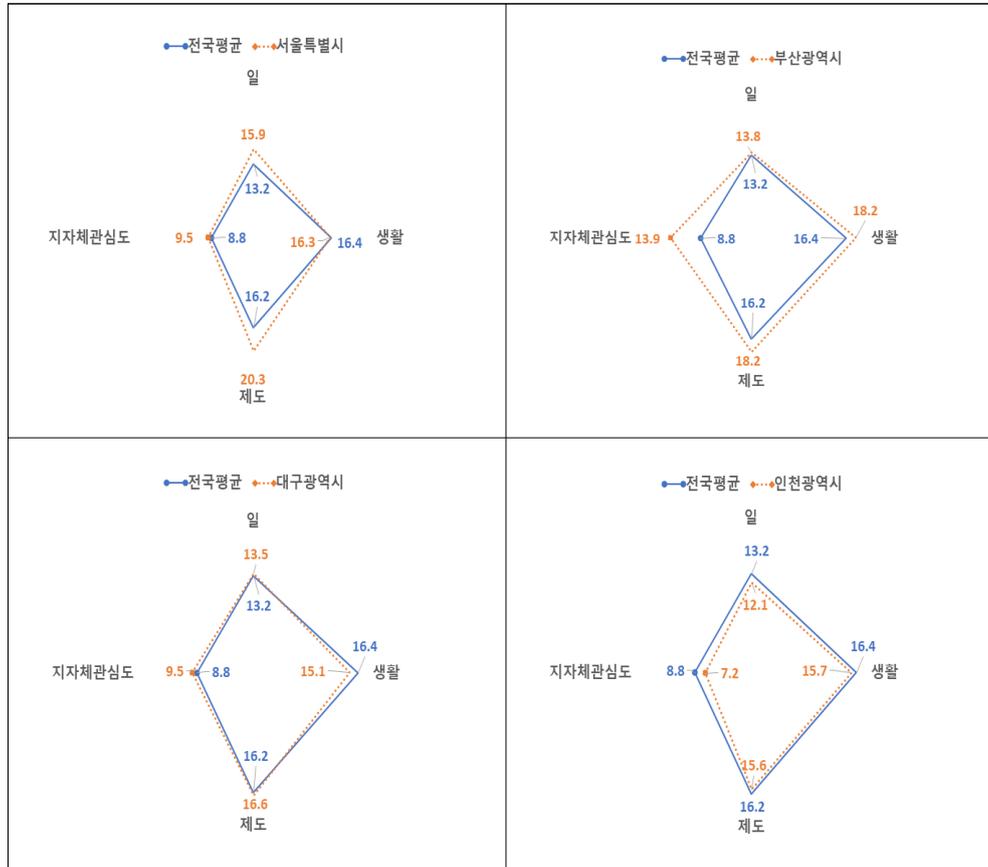


[그림 Ⅲ-5]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한편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과 제도 영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게, 생활 영역은 근소하게 낮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일 영역 점수는 15.9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에 비해 각각 2.7점, 2.4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3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1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점수는 20.3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각각 4.1점과 2.8점 높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9.5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0.7점, 0.2점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 참조).

(단위: 점)



[그림 III-6]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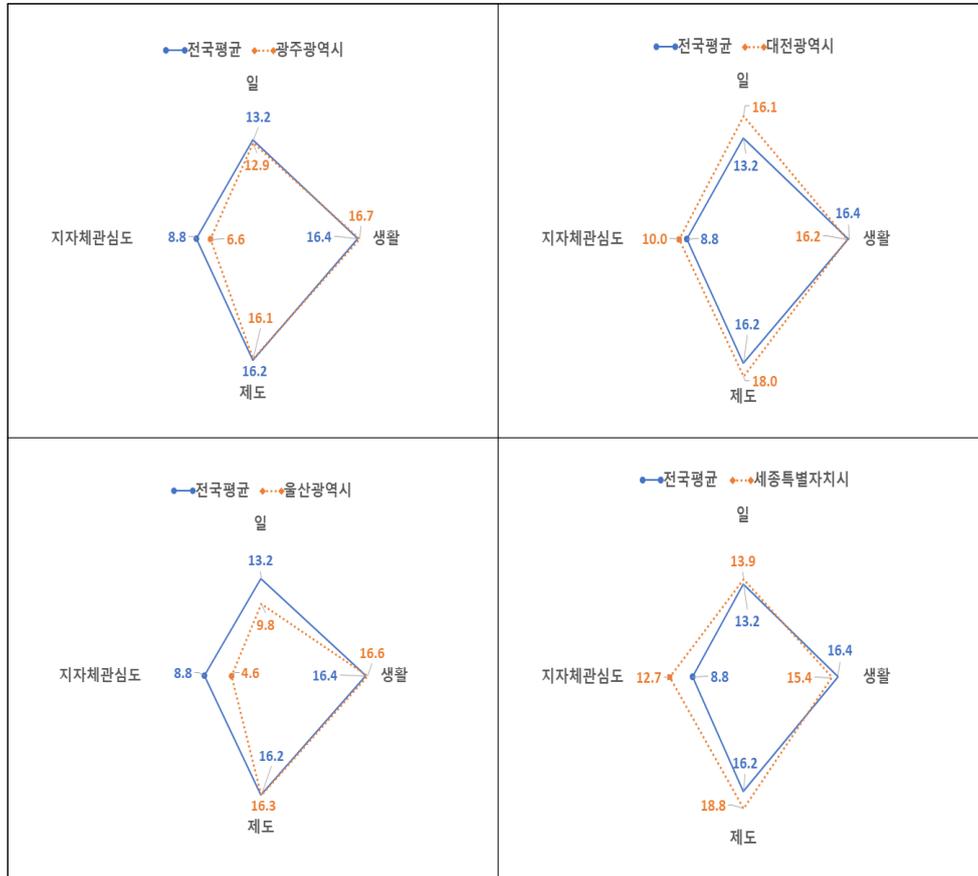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3.8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에 비해 각각 0.6점, 0.3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8.2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1.8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1.9점 높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부산광역시의 점수는 18.2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각각 2.0점과 0.7점 높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3.9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5.1점, 4.6점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6, <표 III-1> 참조).

대구광역시의 경우 일 영역, 제도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3.5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보다 0.3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1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1.3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1.2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점수는 16.6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보다 0.4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0.9점 낮게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9.5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0.7점, 0.2점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 참조).

인천광역시의 경우 모든 영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2.1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보다 1.1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보다 1.4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7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7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0.6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점수는 15.6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보다 0.6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1.9점 낮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7.2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1.6점, 2.1점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 참조).

(단위: 점)



[그림 III-7]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생활 영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2.9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보다 0.3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보다 0.6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7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3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0.4점 높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점수는 16.1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보다 0.1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1.4점 낮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6.6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2.2점, 2.7점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7), <표 I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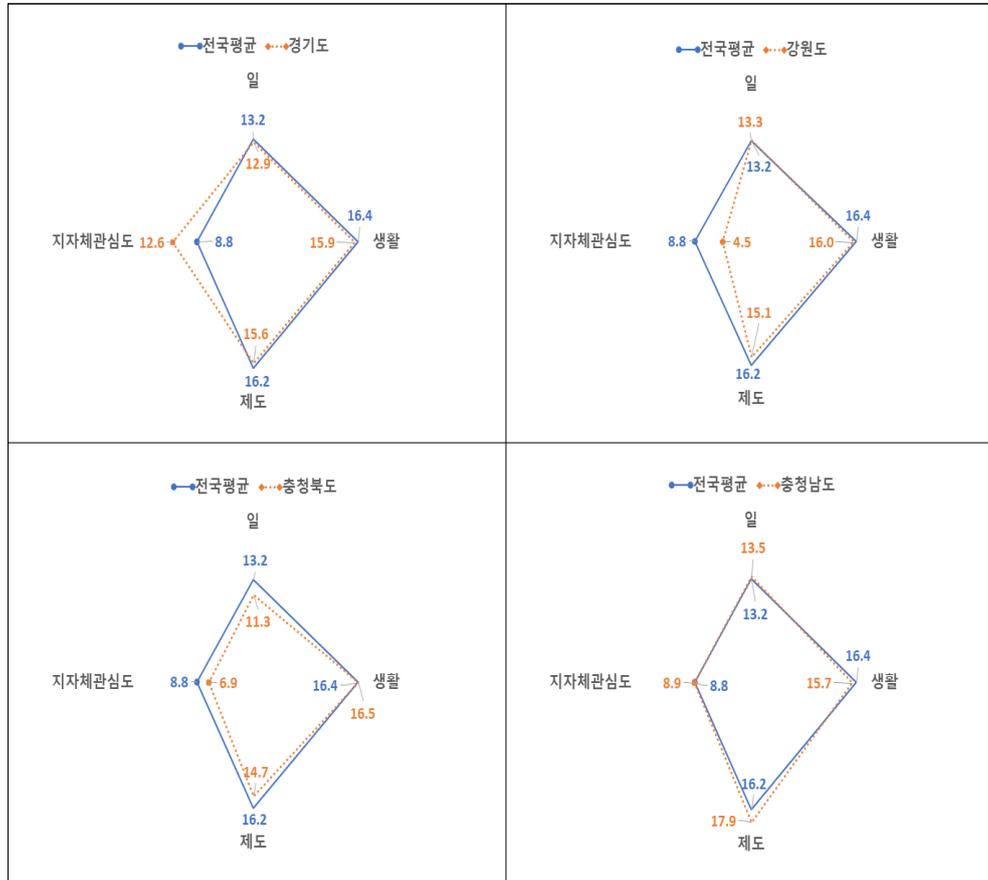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생활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6.1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보다 각각 2.9점과 2.6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2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각각 0.2점과 0.1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대전광역시의 점수는 18.0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보다 1.8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0.5점 높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0.0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1.2점, 0.7점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7), 〈표 Ⅲ-1〉 참조).

울산광역시의 경우 생활 영역과 제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9.8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보다 각각 3.4점과 3.7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6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각각 0.2점과 0.3점 높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점수는 16.3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보다 0.1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1.2점 낮게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4.6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4.2점, 4.7점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7), 〈표 Ⅲ-1〉 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생활 영역을 제외한 일 영역, 제도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 영역 점수는 13.9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보다 각각 0.7점과 0.4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4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각각 1.0점과 0.9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점수는 18.8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보다 2.6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1.3점 높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2.7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3.9점, 3.4점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7), 〈표 Ⅲ-1〉 참조).

(단위: 점)



[그림 III-8]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관심도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일 영역 점수는 12.9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0.3점 낮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0.1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9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과 도 평균 16.5점에 비해 각각 0.5점과 0.6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경기도의 점수는 15.6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0.6점이 낮고, 도 평균 15.1점보다 0.5점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2.6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3.8점과 4.2점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8], <표 I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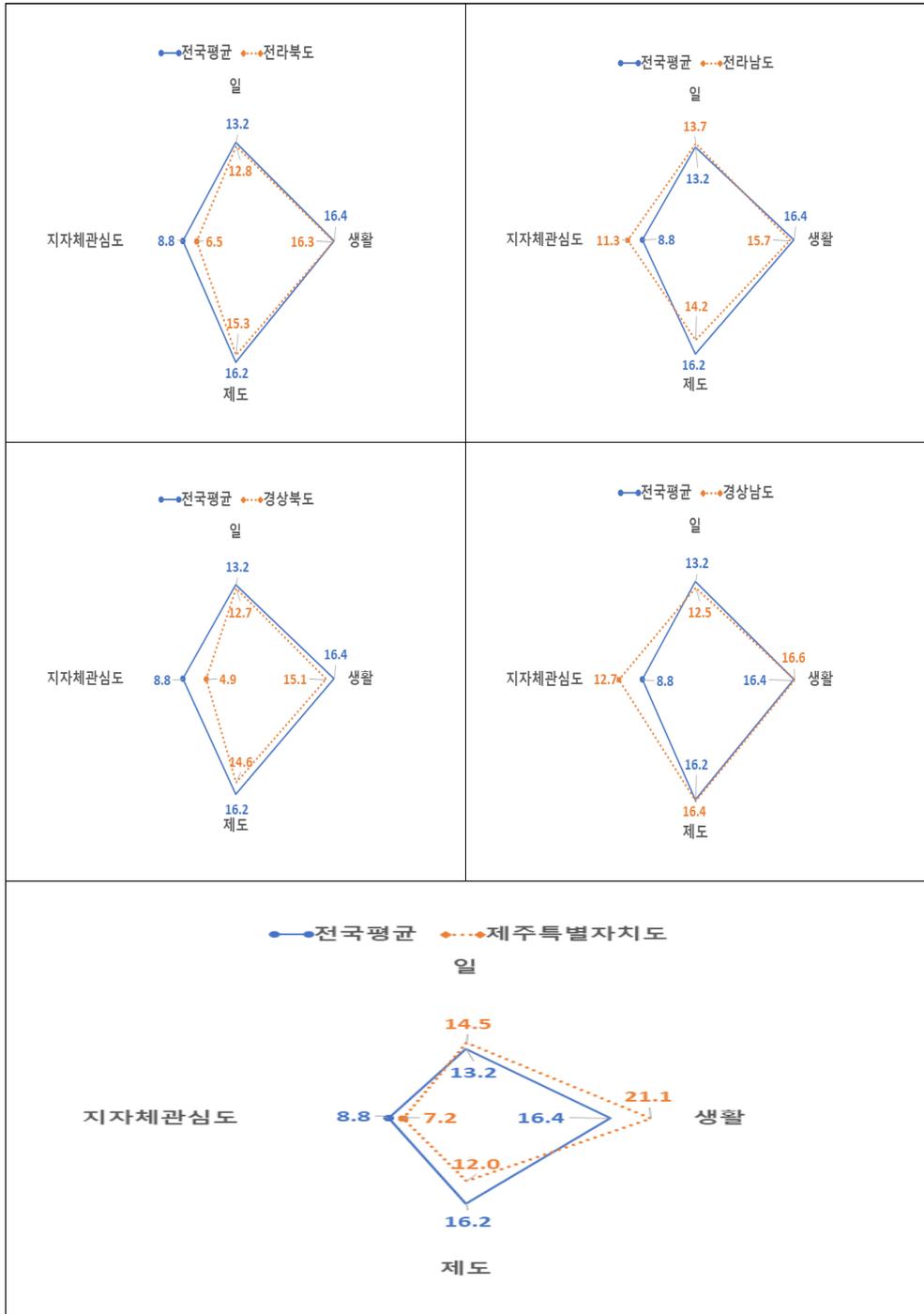
강원도의 경우 일 영역의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일 영역 점수는 13.3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0.1점 높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0.3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0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과 도 평균 16.5점에 비해 각각 0.4점과 0.5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강원도의 점수는 15.1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1.1점이 낮고, 도 평균 15.1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4.5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4.3점과 3.9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8], <표 Ⅲ-1> 참조).

다음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생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청북도의 일 영역 점수는 11.3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1.9점 낮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1.7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5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1점 높고, 도 평균 16.5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충청북도의 점수는 14.7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1.5점이 낮고, 도 평균 15.1점에 비해 0.4점 낮게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6.9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1.9점과 1.5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8], <표 Ⅲ-1> 참조).

충청남도의 경우 일 영역, 제도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생활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일 영역 점수는 13.5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0.3점 높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0.5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7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7점 낮고, 도 평균 16.5점에 비해 0.8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충청남도의 점수는 17.9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1.7점이 높고, 도 평균 15.1점에 비해 2.8점 높게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8.9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0.1점과 0.5점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8], <표 Ⅲ-1> 참조).

(단위: 점)



[그림 III-9]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라북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일 영역 점수는 12.8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0.4점 낮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0.2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3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1점 낮고, 도 평균 16.5점에 비해 0.2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전라북도의 점수는 15.3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0.9점이 낮고, 도 평균 15.1점에 비해 0.2점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6.5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2.3점과 1.9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9), <표 Ⅲ-1> 참조).

전라남도의 일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생활 영역과 제도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의 일 영역 점수는 13.7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0.5점 높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0.7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7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7점 낮고, 도 평균 16.5점에 비해 0.8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전라남도의 점수는 14.2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2.0점이 낮고, 도 평균 15.1점에 비해 0.9점 낮게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1.3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2.5점과 2.9점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9), <표 Ⅲ-1> 참조).

경상북도는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일 영역 점수는 12.7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0.5점 낮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0.3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1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1.3점 낮고, 도 평균 16.5점에 비해 1.4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경상북도의 점수는 14.6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1.6점이 낮고, 도 평균 15.1점에 비해 0.5점 낮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4.9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3.9점과 3.5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9), <표 Ⅲ-1> 참조).

경상남도는 일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의 일 영역 점수는 12.5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0.7점 낮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0.5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6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2점 높고, 도 평균 16.5점에 비해 0.1점 높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경상남도의 점수는 16.4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0.2점이 높고, 도 평균 15.1점에 비해 1.3점 높게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2.7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3.9점과 4.3점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9), <표 III-1> 참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관심도와 제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 영역 점수는 14.5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에 비해 1.3점 높고, 도 평균 13.0점에 비해 1.5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21.1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4.7점 높고, 도 평균 16.5점에 비해 4.6점 높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점수는 12.0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에 비해 4.2점이 낮고, 도 평균 15.1점에 비해 3.1점 낮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7.2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도 평균 8.4점에 비해 각각 1.6점과 1.2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9), <표 III-1> 참조).

2. 2020년 및 2021년 지수 비교

가. 총점

이 절에서는 2020년과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비교한다. 전국 평균 총점은 2020년 53.4점에서 2021년 54.7점으로 1.3점 증가하였고, 8개 특별/광역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총점 평균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4.5점과 56.5점으로 2.0점 증가하였다. 9개 도의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총점 평균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2.5점과 53.0점으로 0.5점 증가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생활 영역, 제도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점수는 증가하고, 일 영역의 점수는 감소하였다. 생활 영역과 제도 영역은 전년 대비 각각 0.5점이 증가하였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년 대비 0.8점이 증가하였으며, 일 영역은 전년 대비 0.5점이 감소하였다(<표 III-2> 참조).

〈표 Ⅲ-2〉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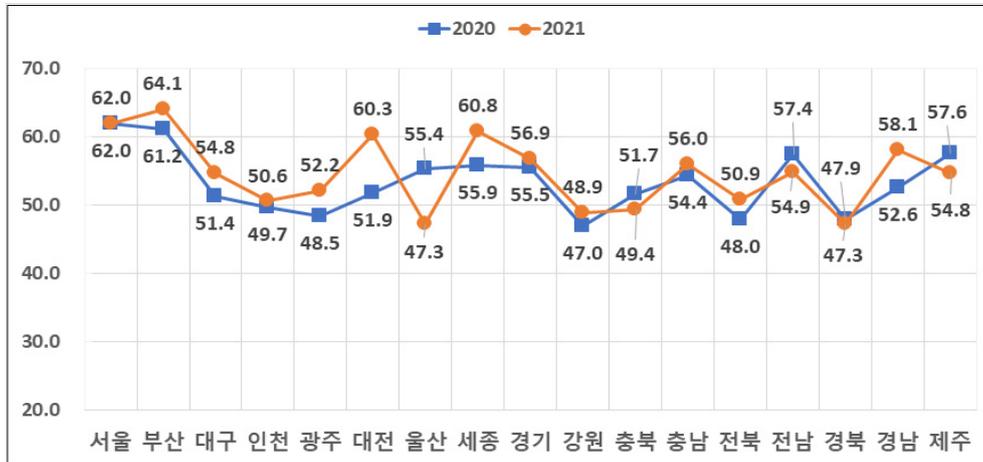
지역	2020년					2021년				
	총점	일	생활	제도	관심도	총점	일	생활	제도	관심도
전국평균	53.4	13.7	15.9	15.7	8.0	54.7	13.2	16.4	16.2	8.8
특별/광역시 평균	54.5	14.4	16.0	16.6	7.5	56.5	13.5	16.3	17.5	9.3
서울특별시	62.0	15.4	15.5	20.8	10.2	62.0	15.9	16.3	20.3	9.5
부산광역시	61.2	15.5	17.3	15.7	12.7	64.1	13.8	18.2	18.2	13.9
대구광역시	51.4	13.6	15.1	14.7	8.0	54.8	13.5	15.1	16.6	9.5
인천광역시	49.7	13.6	15.5	15.0	5.6	50.6	12.1	15.7	15.6	7.2
광주광역시	48.5	13.1	16.1	14.0	5.3	52.2	12.9	16.7	16.1	6.6
대전광역시	51.9	14.5	15.8	15.0	6.6	60.3	16.1	16.2	18.0	10.0
울산광역시	55.4	15.8	17.1	17.1	5.4	47.3	9.8	16.6	16.3	4.6
세종특별자치시	55.9	13.4	15.3	20.7	6.5	60.8	13.9	15.4	18.8	12.7
도 평균	52.5	13.2	15.9	14.9	8.5	53.0	13.0	16.5	15.1	8.4
경기도	55.5	13.4	14.9	14.2	13.0	56.9	12.9	15.9	15.6	12.6
강원도	47.0	13.0	15.3	13.5	5.2	48.9	13.3	16.0	15.1	4.5
충청북도	51.7	12.5	15.3	15.6	8.3	49.4	11.3	16.5	14.7	6.9
충청남도	54.4	13.4	15.4	16.5	9.1	56.0	13.5	15.7	17.9	8.9
전라북도	48.0	11.7	16.1	12.7	7.4	50.9	12.8	16.3	15.3	6.5
전라남도	57.4	14.6	15.2	15.6	11.8	54.9	13.7	15.7	14.2	11.3
경상북도	47.9	12.2	14.7	14.6	6.4	47.3	12.7	15.1	14.6	4.9
경상남도	52.6	12.7	16.3	15.1	8.4	58.1	12.5	16.6	16.4	12.7
제주특별자치도	57.6	14.8	20.2	16.0	6.6	54.8	14.5	21.1	12.0	7.2

2020년과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총점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62.0점과 6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총점은 증가하거나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그림 III-10] 참고). 순위 면에서는 대전광역시가 6계단 상승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표 III-3〉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총점
(단위: 점)

지역	2020		2021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62.0	1	62.0	2	0.0	↓ 1
부산	61.2	2	64.1	1	2.9	↑ 1
대구	51.4	12	54.8	10	3.4	↑ 2
인천	49.7	13	50.6	13	0.9	- 0
광주	48.5	14	52.2	11	3.7	↑ 3
대전	51.9	10	60.3	4	8.4	↑ 6
울산	55.4	7	47.3	16	-8.1	↓ 9
세종	55.9	5	60.8	3	4.9	↑ 2
경기	55.5	6	56.9	6	1.4	- 0
강원	47.0	17	48.9	15	1.9	↑ 2
충북	51.7	11	49.4	14	-2.3	↓ 3
충남	54.4	8	56.0	7	1.6	↑ 1
전북	48.0	15	50.9	12	2.9	↑ 3
전남	57.4	4	54.9	8	-2.5	↓ 4
경북	47.9	16	47.3	17	-0.6	↓ 1
경남	52.6	9	58.1	5	5.5	↑ 4
제주	57.6	3	54.8	9	-2.8	↓ 6

(단위: 점)



[그림 III-10]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나. 영역별 점수 변화

1) 일 영역

일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2020년 13.7점에서 2021년 13.2점으로 2020년에 비해 0.5점 감소하였다.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의 일 영역 평균 점수는 2020년 13.2점에서 2021년 13.5점으로 0.9점 감소하였다. 9개 도의 일 영역 평균 점수는 2020년 13.2점에서 2021년 13.0점으로 0.2점 감소하였다(표 III-2) 참조).

일 영역 점수의 감소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 영역 지표들의 2020년, 2021년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표별 분석 결과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의 증가, 휴가일수와 유연근무제 도입률의 감소에 따라 일 영역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이 연구의 근로시간 관련 통계값의 자료원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부가조사)의 기준월인 4월의 월력상 근로일수가 2020년 20일에서 2021년 22일로 증가했으며, 2021년 상용근로일수(21.4일)가 전년동월대비 1.7일(+8.6%)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표 III-4) 참조).

2020년에는 울산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가 15.8점으로 가장 높았고, 2021년에는 대전광역시가 1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울산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면에서도

울산광역시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16계단 하락). 반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각각 5계단 상승)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순위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표 III-5), [그림 III-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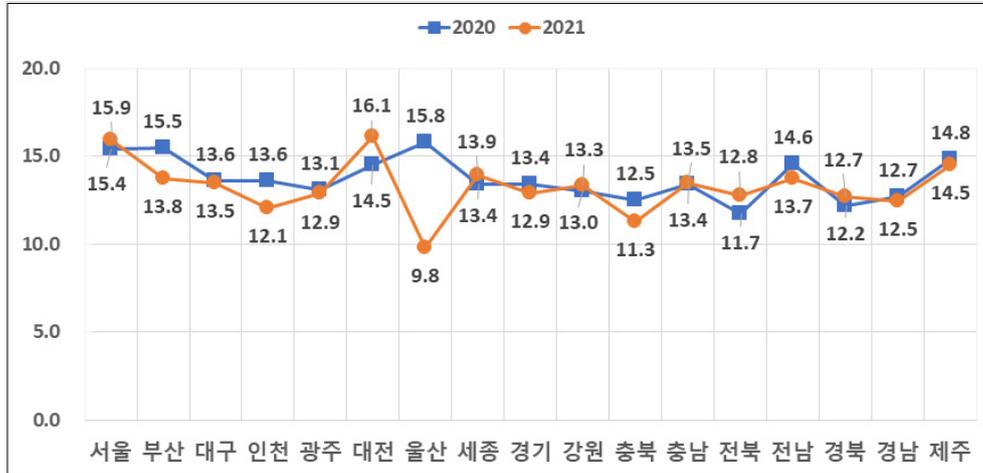
〈표 III-4〉 ‘일’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0~2021년)

‘일’ 영역		2020년(A)	2021년(B)	증감(B-A)
총근로시간(시간)	통계값	163.376	177.041	13.665
	지표점수	0.065	0.060	-0.005
초과근로시간(시간)	통계값	10.041	10.206	0.165
	지표점수	0.010	0.010	0.000
휴가기간(일)	통계값	5.453	4.641	-0.812
	지표점수	0.011	0.009	-0.002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통계값	27.076	26.123	-0.953
	지표점수	0.020	0.020	0.000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통계값	14.229	15.052	0.823
	지표점수	0.031	0.034	0.003
영역점수		13.7	13.2	-0.5

〈표 III-5〉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일
(단위: 점)

지역	2020		2021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5.4	3	15.9	2	0.5	↑ 1
부산	15.5	2	13.8	5	-1.7	↓ 3
대구	13.6	7	13.5	8	-0.1	↓ 1
인천	13.6	8	12.1	15	-1.5	↓ 7
광주	13.1	12	12.9	11	-0.2	↑ 1
대전	14.5	6	16.1	1	1.6	↑ 5
울산	15.8	1	9.8	17	-6.0	↓ 16
세종	13.4	9	13.9	4	0.5	↑ 5
경기	13.4	10	12.9	10	-0.5	- 0
강원	13.0	13	13.3	9	0.3	↑ 4
충북	12.5	15	11.3	16	-1.2	↓ 1
충남	13.4	11	13.5	7	0.1	↑ 4
전북	11.7	17	12.8	12	1.1	↑ 5
전남	14.6	5	13.7	6	-0.9	↓ 1
경북	12.2	16	12.7	13	0.5	↑ 3
경남	12.7	14	12.5	14	-0.2	- 0
제주	14.8	4	14.5	3	-0.3	↑ 1

(단위: 점)



[그림 III-11]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한편 일 영역 지표의 2020년과 2021년 통계값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에서 총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총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9.3시간 증가하였다.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1.9시간 증가하였다(〈표 III-6〉 참조).

휴가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모두 시·도에서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표 III-6〉 참조).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도입률과 이용률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도입률의 경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도에서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8.0%p 증가하였다. 유연근무제 이용률도 대전광역시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에서는 감소하였다(〈표 III-6〉 참조).

〈표 III-6〉 2020~2021년 일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시간, 일, %p)

지역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서울	15.8	0.5	-0.8	2.9	5.3
부산	15.4	0.3	-3.0	-1.9	-1.6
대구	17.9	1.9	-1.6	6.4	2.8
인천	14.7	0.2	-0.6	-10.7	-0.4
광주	12.9	1.5	0.0	-7.3	5.0
대전	14.0	-0.2	-1.0	18.0	6.6
울산	11.5	-0.4	-2.4	-27.1	-24.9
세종	13.5	-1.5	0.4	1.0	3.2
경기	12.9	-0.3	-1.3	1.2	0.2
강원	13.5	0.4	-1.1	0.9	4.6
충북	10.7	-0.6	-1.0	-3.8	-1.9
충남	13.1	0.0	-1.4	1.0	3.2
전북	10.9	0.0	0.9	6.6	3.3
전남	10.8	0.1	0.7	-3.4	-1.8
경북	13.4	0.4	-0.1	3.0	3.6
경남	12.0	-0.4	-1.1	-1.6	2.1
제주	19.3	0.9	-0.4	-1.7	4.7

2) 생활 영역

생활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2020년 15.9점에서 2021년 16.4점으로 소폭(0.5점) 증가하였다. 8개 특별/광역시와 생활 영역 평균 점수는 2020년 16.0점에서 2021년 16.3점으로 0.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도의 생활 영역 평균 점수 역시 2020년 15.9점에서 2021년 16.5점으로 0.6점 증가하였다(〈표 III-2〉 참조).

생활 영역 점수의 상승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표별 점수와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2019년 조사 통계값을 그대로 활용한 '남성 가사노동 분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제외하면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 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 생활 균형 정도' 등의 값은 상승함으로써 생활

영역 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III-7〉 참조).

〈표 III-7〉 ‘생활’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0~2021년)

‘생활’ 영역		2020년(A)	2021년(B)	증감(B-A)
남성 가사노동 분담 ⁴⁾ (남성 가사노동 시간/전체 가사노동 시간)	통계값	0.229	0.229	0.000
	지표점수	0.023	0.023	0.000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의 비율)	통계값	61.124	64.376	3.252
	지표점수	0.022	0.023	0.00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공평하게 분담’의 비율)	통계값	62.059	62.059	0.000
	지표점수	0.031	0.031	0.000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일 우선’의 비율)	통계값	40.329	33.441	-6.888
	지표점수	0.015	0.018	0.003
평일 여가시간 (단위: 시간)	통계값	3.871	3.929	0.058
	지표점수	0.02	0.021	0.001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100점 만점)	통계값	4.594	4.629	0.035
	지표점수	0.026	0.026	0.000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일 집중’ 비율)	통계값	34.629	35.818	1.189
	지표점수	0.022	0.022	0.000
영역점수		15.9	16.4	0.5

2020년과 2021년 생활 영역 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두 20.2점, 2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청북도 1.2점, 경기도 1.0점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울산광역시 유일하게 0.5점 감소하였다(〈표 III-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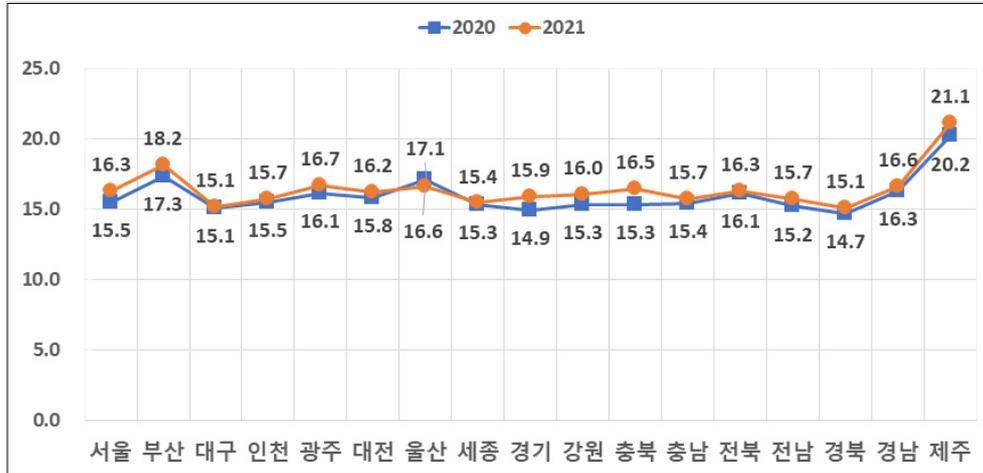
순위 면에서는 충청북도의 상승폭이 가장 크고(7계단 상승), 뒤이어 경기도(5계단 상승)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하락폭(5계단 하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 [그림 III-12] 참고).

4) 5년 주기로 공표되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조사값인 ‘남녀 가사노동시간’과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도 조사값인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는 2020년도의 값을 그대로 가져왔다.

〈표 III-8〉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생활
(단위: 점)

지역	2020		2021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5.5	8	16.3	8	0.8	- 0
부산	17.3	2	18.2	2	0.9	- 0
대구	15.1	15	15.1	16	0.0	↓ 1
인천	15.5	9	15.7	14	0.2	↓ 5
광주	16.1	5	16.7	3	0.6	↑ 2
대전	15.8	7	16.2	9	0.4	↓ 2
울산	17.1	3	16.6	4	-0.5	↓ 1
세종	15.3	11	15.4	15	0.1	↓ 4
경기	14.9	16	15.9	11	1.0	↑ 5
강원	15.3	12	16.0	10	0.7	↑ 2
충북	15.3	13	16.5	6	1.2	↑ 7
충남	15.4	10	15.7	12	0.3	↓ 2
전북	16.1	6	16.3	7	0.2	↓ 1
전남	15.2	14	15.7	13	0.5	↑ 1
경북	14.7	17	15.1	17	0.4	- 0
경남	16.3	4	16.6	5	0.3	↓ 1
제주	20.2	1	21.1	1	0.9	- 0

(단위: 점)



[그림 III-12]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한편 생활 영역 지표 중 2020년 대비 값의 변화가 없었던 지표를 제외하고 2020년과 2021년 통계값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비율인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지표값의 변화를 보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10.2%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일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둔다는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특히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평일 여가시간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평일 여가시간이 많이 증가한 시·도는 부산광역시 0.6시간,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0.5시간 등이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지표의 통계값 변화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에서는 2020년에 비해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가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과 여가 중 ‘일 집중’ 비율을 묻는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지표 통계값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상승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가보다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표 III-9〉 참조).

〈표 III-9〉 2020~2021년 생활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p, 점)

지역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100점 만점)	일-여가생활 균형정도 ('일 집중' 비율)
서울	1.9	-12.3	0.3	1.4	-0.4
부산	3.6	-7.3	0.6	0.0	-1.6
대구	-1.5	-10.1	0.4	-2.9	6.6
인천	5.7	-7.7	-0.6	1.4	3.1
광주	-2.6	-4.0	0.1	4.3	-3.4
대전	0.8	-6.9	0.2	5.7	5.2
울산	6.5	-6.9	-0.4	-4.3	3.7
세종	1.0	-7.1	-0.1	-2.9	3.0
경기	0.8	-10.4	0.3	0.0	-6.8
강원	6.4	-6.8	0.0	-1.4	-2.8
충북	4.8	-6.4	0.5	2.9	-6.4
충남	2.9	-5.6	0.2	8.6	16.2
전북	10.2	-4.3	0.0	1.4	8.4
전남	6.0	-1.2	-0.2	0.0	-8.3
경북	-1.8	-7.3	0.5	0.0	4.2
경남	1.8	-7.0	0.0	0.0	2.3
제주	8.8	-5.8	-0.8	-5.7	-2.8

3) 제도 영역

제도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2020년 15.7점에서 2021년 16.2점으로 0.5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의 제도 영역 평균 점수는 2020년 16.6점에서 2021년 17.5점으로 0.9점 증가하였다. 9개 도의 제도 영역 평균 점수는 2020년 14.9점에서 2021년 15.1점으로 0.2점 증가하였다(〈표 III-2〉 참조).

제도 영역 점수의 증가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표별 점수와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의 통계값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0〉 참조).

〈표 Ⅲ-10〉 ‘제도’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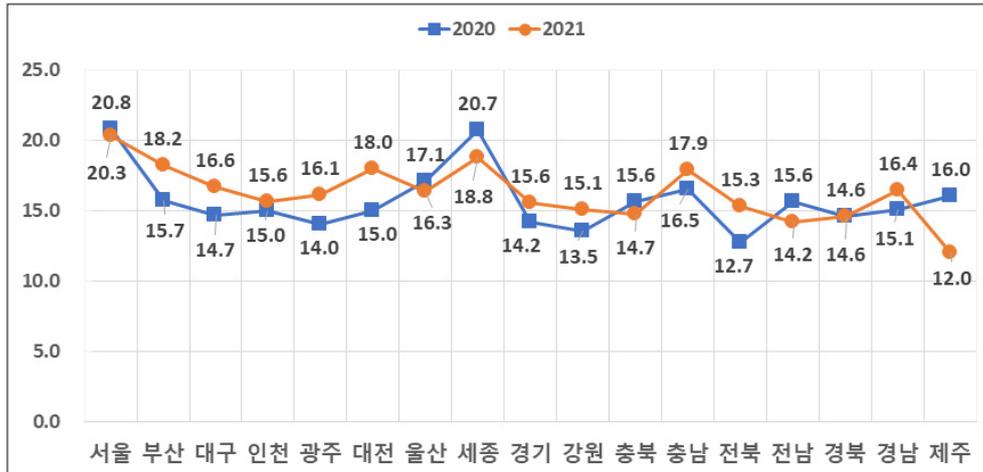
‘제도’ 영역		2020(A)	2021(B)	증감(B-A)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통계값	1.606	2.379	0.773
	지표점수	0.025	0.033	0.008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통계값	0.452	0.301	-0.151
	지표점수	0.040	0.027	-0.01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사업장 비율(%)	통계값	0.366	0.532	0.166
	지표점수	0.025	0.025	0.000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통계값	12.619	15.117	2.498
	지표점수	0.023	0.027	0.004
초등돌봄교실이용률(%)	통계값	10.477	11.949	1.472
	지표점수	0.014	0.016	0.002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100점 환산)	통계값	54.116	62.852	8.736
	지표점수	0.014	0.016	0.002
배우자출산휴가 이용 (시행기업 비율: %)	통계값	6.307	6.746	0.439
	지표점수	0.016	0.017	0.001
영역점수		15.7	16.2	0.5

2020년과 2021년 제도 영역 점수는 서울특별시가 각각 20.8점과 2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제도 영역 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표 Ⅲ-11〉, [그림 Ⅲ-13] 참고).

〈표 III-11〉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제도
(단위: 점)

지역	2020		2021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20.8	1	20.3	1	-0.5	- 0
부산	15.7	6	18.2	3	2.5	↑ 3
대구	14.7	12	16.6	6	1.9	↑ 6
인천	15	10	15.6	10	0.6	- 0
광주	14	15	16.1	9	2.1	↑ 6
대전	15	11	18.0	4	3.0	↑ 7
울산	17.1	3	16.3	8	-0.8	↓ 5
세종	20.7	2	18.8	2	-1.9	- 0
경기	14.2	14	15.6	11	1.4	↑ 3
강원	13.5	16	15.1	13	1.6	↑ 3
충북	15.6	7	14.7	14	-0.9	↓ 7
충남	16.5	4	17.9	5	1.4	↓ 1
전북	12.7	17	15.3	12	2.6	↑ 5
전남	15.6	8	14.2	16	-1.4	↓ 8
경북	14.6	13	14.6	15	0.0	↓ 2
경남	15.1	9	16.4	7	1.3	↑ 2
제주	16.0	5	12.0	17	-4.0	↓ 12

(단위: 점)



[그림 III-13]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한편 제도 영역 지표의 2020년과 2021년 통계값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은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에서 감소하였다.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감소하였다.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증가하였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2020~2021년 제도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p, 점)

지역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사용/전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사용/전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사용/전체)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율 (%)	초등돌봄 교실 이용률 (%)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100점 만점)	배우자출산 휴가 이용 (시행기업 비율(%))
서울	0.73	-0.15	0.14	3.30	2.24	8.09	0.29
부산	0.45	-0.29	-0.03	2.35	0.84	17.17	0.82
대구	1.21	0.01	0.26	3.77	3.74	7.56	-0.86
인천	0.95	-0.08	0.11	2.36	2.28	11.07	-0.65
광주	0.66	-0.14	0.15	3.37	1.66	12.11	-0.33
대전	1.73	-0.04	0.55	1.92	2.09	26.35	4.32
울산	1.90	-0.06	0.59	1.51	0.60	2.60	-5.66
세종	1.16	-0.20	0.46	8.31	2.21	4.07	4.93
경기	0.53	-0.48	-0.01	1.95	0.35	10.15	2.45
강원	0.74	-0.12	0.15	1.87	1.65	-0.65	1.07
충북	0.49	-0.09	0.10	2.20	0.64	-0.81	-5.71
충남	0.31	-0.16	0.03	1.39	0.47	4.07	4.93
전북	0.44	-0.01	0.01	1.87	0.82	7.61	5.99
전남	0.65	-0.15	0.09	2.29	0.54	12.49	-2.19
경북	0.12	-0.22	-0.02	1.47	2.62	5.95	-1.78
경남	0.42	-0.09	0.00	2.30	1.57	10.93	1.36
제주	1.44	-0.16	0.56	0.23	0.69	9.77	-1.53

4)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2020년 8.0점에서 2021년 8.8점으로 0.8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8개 특별/광역시 지자체 관심도 영역 평균 점수는 2020년 7.5점에서 2021년 9.3점으로 1.8점 증가하였다. 9개 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평균 점수는 2020년 8.5점에서 2021년 8.4점으로 0.1점 낮게 나타났다(〈표 III-2〉 참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각 지표별 점수와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담당조직 유무’,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통계값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0~2021년)

지자체 ‘관심도’ 영역		2020(A)	2021년(B)	증감(B-A)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100점 만점)	통계값	4.067	4.183	0.116
	지표점수	0.017	0.018	0.001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1점 만점)	통계값	0.632	0.750	0.118
	지표점수	0.031	0.037	0.006
담당조직 유무(1.1점 만점)	통계값	0.412	0.454	0.042
	지표점수	0.021	0.023	0.002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인구 천 명당 제공 수)	통계값	11.082	11.126	0.044
	지표점수	0.008	0.008	0.000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	통계값	2.079	1.391	-0.688
	지표점수	0.003	0.002	-0.001
영역 점수		8.0	8.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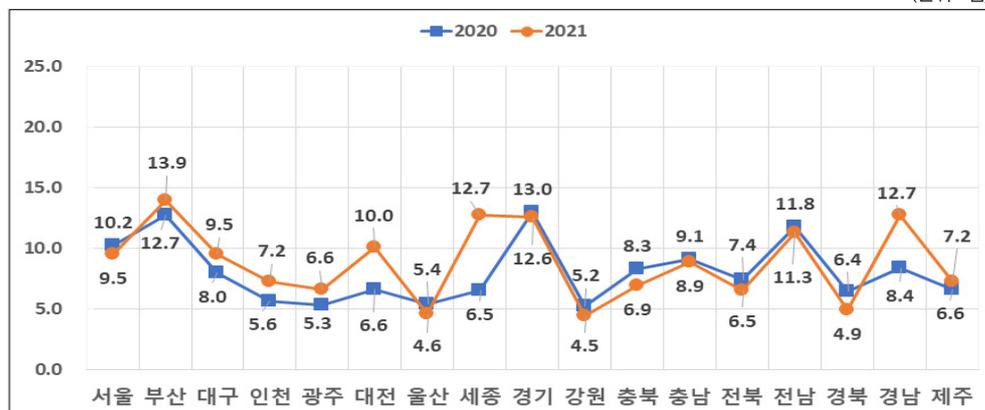
2020년에는 경기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고, 2021년에는 부산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의 변화를 보면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전년 대비 점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증가하였다. 순위변화를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10계단

상승한 세종특별자치시이고,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5계단 하락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이다(〈표 III-14〉, [그림 III-14] 참고).

〈표 III-14〉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지자체 관심도

지역	2020		2021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0.2	4	9.5	8	-0.7	↓ 4
부산	12.7	2	13.9	1	1.2	↑ 1
대구	8.0	8	9.5	7	1.5	↑ 1
인천	5.6	14	7.2	10	1.6	↑ 4
광주	5.3	16	6.6	13	1.3	↑ 3
대전	6.6	10	10.0	6	3.4	↑ 4
울산	5.4	15	4.6	16	-0.8	↓ 1
세종	6.5	12	12.7	2	6.2	↑ 10
경기	13.0	1	12.6	4	-0.4	↓ 3
강원	5.2	17	4.5	17	-0.7	- 0
충북	8.3	7	6.9	12	-1.4	↓ 5
충남	9.1	5	8.9	9	-0.2	↓ 4
전북	7.4	9	6.5	14	-0.9	↓ 5
전남	11.8	3	11.3	5	-0.5	↓ 2
경북	6.4	13	4.9	15	-1.5	↓ 2
경남	8.4	6	12.7	3	4.3	↑ 3
제주	6.6	11	7.2	11	0.6	- 0

(단위: 점)



[그림 III-14] 2020~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2020년과 2021년 통계값 변화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지표 점수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라북도 4.1점,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상북도 3.1점으로 나타났다(〈표 III-15〉 참조).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지표의 경우 2021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점수가 증가하였다. 담당조직 유무의 경우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등에서 점수가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지표의 통계값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지표 점수의 변화이다.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경험한 사업체의 비율 변화를 보면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III-15〉 2020~2021년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 개, 점)

지역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100점 만점)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1점 만점)	담당조직 유무 (1.1점 만점)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인구 천 명당 제공 수)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
서울	-2.0	0.0	0.0	0.0	0.7
부산	2.6	0.0	0.0	0.0	1.5
대구	-2.3	0.5	0.0	0.0	0.3
인천	-1.9	0.0	0.5	0.0	-1.8
광주	2.7	0.0	0.0	0.1	1.3
대전	1.9	0.5	0.0	0.0	0.2
울산	-1.5	0.0	0.0	0.0	-1.3
세종	0.8	0.5	0.8	0.0	-3.3
경기	-0.6	0.0	0.0	0.0	-1.8
강원	-1.5	0.0	0.0	0.1	-0.8

Ⅲ.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49

지역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100점 만점)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1점 만점)	담당조직 유무 (1.1점 만점)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인구 천 명당 제공 수)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
충북	0.0	0.0	-0.3	0.1	1.6
충남	0.8	0.5	-0.5	0.1	-3.3
전북	4.1	0.0	-0.5	0.1	-0.2
전남	-1.1	0.0	0.0	0.2	-0.9
경북	-3.1	0.0	0.0	0.1	-2.2
경남	1.7	0.0	0.8	0.0	-2.3
제주	1.4	0.0	0.0	0.0	0.8

IV

결론

- | | |
|------------------|----|
|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53 |
| 2. 정책제언 | 54 |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국 평균은 54.7점으로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일 영역의 점수가 감소하고, 생활 영역, 제도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증가하였다.

일 영역에 속하는 지표들의 통계값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의 증가, 휴가일수와 유연근무제 도입률의 감소에 따라 일 영역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이 연구의 근로시간 관련 통계값의 자료원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부가조사)의 기준월인 4월의 월력상 근로일수가 2020년 20일에서 2021년 22일로 증가했으며, 2021년 상용근로일수(21.4일)가 전년동월대비 1.7일(+8.6%)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영역 점수 각 지표별 점수와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2020년 조사 통계값을 그대로 활용한 '남성 가사노동 분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제외하면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 생활 균형 정도' 등의 값은 상승함으로써 생활 영역 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도 영역 점수의 증가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표별 점수와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 돌봄교실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의 통계값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각 지표별 점수와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담당조직 유무',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통계값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생활 균형 관련 추진 체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일·생활 균형 문화가 지역적 편차 없이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제언

가. 전년 대비 감소 지표 개선 사업 추진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의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생활 영역의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영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지표의 통계값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표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지표 체계 개선 검토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값은 2023년 각 지표 목표값의 도달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유무 등 각 지표의 목표값 도달 수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체노동력조사(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부가조사) 등 각종 조사 기준월의 월력상 근로일수 변화에 따른 총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증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지표 산출 시 반영하기 때문에 순위 집계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전후 연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월력상 근로일수 대비 근로시간 비율 등으로 지표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DB에 기반한 통계값은 고용보험 DB 추출 시 조건 설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남녀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가칭) 실시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등과 같이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을 파악하여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 남녀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가칭)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정·김종숙·김난주·이선행·권소영,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고용노동부, 2019.
- 고용노동부,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21.
- 고용노동부,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보고서』, 각 연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 연도.
-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각 연도.
-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극장 현황』, 각 연도.
- 전기택·홍승아·이승현·이선행,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 전기택·김종숙·김난주·이선행·권소영,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고용노동부, 2019.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17.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각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접속일 2022. 10. 30)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 각 연도.
- 홍승아·전기택·박수범·동제연·김수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 고용노동부, 2017.

부 록

[부록] 영역별 점수 산출 과정

[부표 1] 일 영역(1)

지역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172.9	150.0	0.868	0.071	0.061	5.9	2.05	0.347	0.044	0.015	5.3	15.00	0.35	0.030	0.011
부산	175.5	150.0	0.855	0.071	0.060	7.3	2.05	0.281	0.044	0.012	3.4	15.00	0.23	0.030	0.007
대구	177.3	150.0	0.846	0.071	0.060	10.1	2.05	0.203	0.044	0.009	3.6	15.00	0.24	0.030	0.007
인천	178.7	150.0	0.839	0.071	0.059	9.9	2.05	0.207	0.044	0.009	4.6	15.00	0.31	0.030	0.009
광주	173.2	150.0	0.866	0.071	0.061	7.6	2.05	0.270	0.044	0.012	4.6	15.00	0.31	0.030	0.009
대전	173.2	150.0	0.866	0.071	0.061	5.5	2.05	0.373	0.044	0.016	4.3	15.00	0.29	0.030	0.009
울산	179.6	150.0	0.835	0.071	0.059	14.8	2.05	0.138	0.044	0.006	4.1	15.00	0.27	0.030	0.008
세종	179.1	150.0	0.838	0.071	0.059	13.1	2.05	0.156	0.044	0.007	5.6	15.00	0.37	0.030	0.011
경기	179.3	150.0	0.837	0.071	0.059	9.4	2.05	0.218	0.044	0.010	5.2	15.00	0.35	0.030	0.011
강원	173.6	150.0	0.864	0.071	0.061	8.7	2.05	0.235	0.044	0.010	6.0	15.00	0.40	0.030	0.012
충북	179.4	150.0	0.836	0.071	0.059	13.1	2.05	0.156	0.044	0.007	4.4	15.00	0.29	0.030	0.009
충남	181.2	150.0	0.828	0.071	0.059	14.4	2.05	0.142	0.044	0.006	4.2	15.00	0.28	0.030	0.009
전북	178.1	150.0	0.842	0.071	0.060	11.7	2.05	0.175	0.044	0.008	5.9	15.00	0.39	0.030	0.012
전남	176.5	150.0	0.850	0.071	0.060	8.3	2.05	0.247	0.044	0.011	5.2	15.00	0.35	0.030	0.011
경북	178.9	150.0	0.838	0.071	0.059	14.5	2.05	0.141	0.044	0.006	4.5	15.00	0.30	0.030	0.009
경남	180.4	150.0	0.831	0.071	0.059	13.8	2.05	0.148	0.044	0.007	5.0	15.00	0.33	0.030	0.010
제주	172.8	150.0	0.868	0.071	0.061	5.4	2.05	0.379	0.044	0.017	3.0	15.00	0.20	0.030	0.006

[부표 2] 일 영역(2)

지역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영역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33.04	36.45	0.91	0.028	0.025	20.97	21.60	0.97	0.048	0.047	15.93
부산	30.02	36.45	0.82	0.028	0.023	15.70	21.60	0.73	0.048	0.035	13.76
대구	29.50	36.45	0.81	0.028	0.023	16.31	21.60	0.76	0.048	0.036	13.49
인천	20.52	36.45	0.56	0.028	0.016	12.20	21.60	0.56	0.048	0.027	12.07
광주	21.78	36.45	0.60	0.028	0.017	13.28	21.60	0.61	0.048	0.030	12.87
대전	43.13	36.45	1.00	0.028	0.028	21.06	21.60	0.98	0.048	0.047	16.11
울산	15.47	36.45	0.42	0.028	0.012	5.62	21.60	0.26	0.048	0.013	9.78
세종	28.20	36.45	0.77	0.028	0.022	18.02	21.60	0.83	0.048	0.040	13.91
경기	26.42	36.45	0.72	0.028	0.020	13.20	21.60	0.61	0.048	0.029	12.89
강원	22.43	36.45	0.62	0.028	0.017	14.59	21.60	0.68	0.048	0.032	13.33
충북	18.63	36.45	0.51	0.028	0.014	10.62	21.60	0.49	0.048	0.024	11.28
충남	28.20	36.45	0.77	0.028	0.022	18.02	21.60	0.83	0.048	0.040	13.50
전북	26.21	36.45	0.72	0.028	0.020	12.77	21.60	0.59	0.048	0.028	12.77
전남	25.96	36.45	0.71	0.028	0.020	16.15	21.60	0.75	0.048	0.036	13.73
경북	25.01	36.45	0.69	0.028	0.019	15.02	21.60	0.70	0.048	0.033	12.72
경남	23.90	36.45	0.66	0.028	0.018	13.90	21.60	0.64	0.048	0.031	12.47
제주	25.66	36.45	0.70	0.028	0.020	18.47	21.60	0.86	0.048	0.041	14.49

[부표 3] 생활 영역(1)

지역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가사노동시간분담률)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여성가사 노동시간	남성가사 노동시간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172	52	0.23	0.50	0.46	0.050	0.02	66.80	81.21	0.82	0.030	0.024	65.70	74.07	0.89	0.036	0.032
부산	168	54	0.24	0.50	0.49	0.050	0.02	65.70	81.21	0.81	0.030	0.024	62.70	74.07	0.85	0.036	0.031
대구	171	49	0.22	0.50	0.45	0.050	0.02	62.90	81.21	0.77	0.030	0.023	54.70	74.07	0.74	0.036	0.027
인천	179	48	0.21	0.50	0.42	0.050	0.02	67.40	81.21	0.83	0.030	0.025	62.90	74.07	0.85	0.036	0.031
광주	166	45	0.21	0.50	0.43	0.050	0.02	59.80	81.21	0.74	0.030	0.022	68.70	74.07	0.93	0.036	0.034
대전	182	55	0.23	0.50	0.46	0.050	0.02	63.10	81.21	0.78	0.030	0.023	64.10	74.07	0.87	0.036	0.032
울산	192	45	0.19	0.50	0.38	0.050	0.02	62.00	81.21	0.76	0.030	0.023	59.70	74.07	0.81	0.036	0.029
세종	202	60	0.23	0.50	0.46	0.050	0.02	63.50	81.21	0.78	0.030	0.023	64.40	74.07	0.87	0.036	0.032
경기	185	53	0.22	0.50	0.45	0.050	0.02	61.00	81.21	0.75	0.030	0.022	63.40	74.07	0.86	0.036	0.031
강원	176	55	0.24	0.50	0.48	0.050	0.02	64.90	81.21	0.80	0.030	0.024	66.30	74.07	0.90	0.036	0.033
충북	172	50	0.23	0.50	0.45	0.050	0.02	62.40	81.21	0.77	0.030	0.023	62.30	74.07	0.84	0.036	0.031
충남	175	53	0.23	0.50	0.46	0.050	0.02	63.60	81.21	0.78	0.030	0.023	63.60	74.07	0.86	0.036	0.031
전북	176	59	0.25	0.50	0.50	0.050	0.03	68.60	81.21	0.84	0.030	0.025	60.80	74.07	0.82	0.036	0.030
전남	172	52	0.23	0.50	0.46	0.050	0.02	67.70	81.21	0.83	0.030	0.025	57.00	74.07	0.77	0.036	0.028
경북	182	50	0.22	0.50	0.43	0.050	0.02	57.90	81.21	0.71	0.030	0.021	54.70	74.07	0.74	0.036	0.027
경남	190	53	0.22	0.50	0.44	0.050	0.02	61.70	81.21	0.76	0.030	0.022	59.30	74.07	0.80	0.036	0.029
제주	157	62	0.28	0.50	0.57	0.050	0.03	75.40	81.21	0.93	0.030	0.027	64.70	74.07	0.87	0.036	0.032

[부표 4] 생활 영역(2)

지역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여가시간(평일)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35.50	12.52	0.35	0.048	0.017	3.50	5.69	0.62	0.030	0.018
부산	38.70	12.52	0.32	0.048	0.016	5.40	5.69	0.95	0.030	0.028
대구	38.10	12.52	0.33	0.048	0.016	4.00	5.69	0.70	0.030	0.021
인천	33.40	12.52	0.37	0.048	0.018	3.90	5.69	0.69	0.030	0.021
광주	34.70	12.52	0.36	0.048	0.017	3.90	5.69	0.69	0.030	0.021
대전	33.30	12.52	0.38	0.048	0.018	4.10	5.69	0.72	0.030	0.022
울산	35.50	12.52	0.35	0.048	0.017	4.00	5.69	0.70	0.030	0.021
세종	31.20	12.52	0.40	0.048	0.019	3.70	5.69	0.65	0.030	0.020
경기	31.70	12.52	0.40	0.048	0.019	3.40	5.69	0.60	0.030	0.018
강원	29.30	12.52	0.43	0.048	0.020	3.50	5.69	0.62	0.030	0.018
충북	31.40	12.52	0.40	0.048	0.019	4.10	5.69	0.72	0.030	0.022
충남	30.30	12.52	0.41	0.048	0.020	3.70	5.69	0.65	0.030	0.020
전북	30.10	12.52	0.42	0.048	0.020	3.40	5.69	0.60	0.030	0.018
전남	34.60	12.52	0.36	0.048	0.017	3.70	5.69	0.65	0.030	0.020
경북	31.30	12.52	0.40	0.048	0.019	3.70	5.69	0.65	0.030	0.020
경남	34.20	12.52	0.37	0.048	0.018	5.30	5.69	0.93	0.030	0.028
제주	35.20	12.52	0.36	0.048	0.017	3.50	5.69	0.62	0.030	0.018

[부표 5] 생활 영역(3)

지역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균형정도					영역점수
	통계값	환산값 (100점)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4.5	64.29	100.00	0.64	0.039	0.025	30.90	10.00	0.32	0.068	0.022	16.27
부산	4.8	68.57	100.00	0.69	0.039	0.027	21.60	10.00	0.46	0.068	0.031	18.17
대구	4.4	62.86	100.00	0.63	0.039	0.025	39.00	10.00	0.26	0.068	0.017	15.13
인천	4.4	62.86	100.00	0.63	0.039	0.025	40.70	10.00	0.25	0.068	0.017	15.68
광주	5.1	72.86	100.00	0.73	0.039	0.029	29.60	10.00	0.34	0.068	0.023	16.65
대전	4.9	70.00	100.00	0.70	0.039	0.028	40.50	10.00	0.25	0.068	0.017	16.19
울산	4.7	67.14	100.00	0.67	0.039	0.026	22.20	10.00	0.45	0.068	0.030	16.61
세종	4.7	67.14	100.00	0.67	0.039	0.026	60.60	10.00	0.17	0.068	0.011	15.43
경기	4.4	62.86	100.00	0.63	0.039	0.025	31.50	10.00	0.32	0.068	0.021	15.90
강원	4.1	58.57	100.00	0.59	0.039	0.023	38.00	10.00	0.26	0.068	0.018	16.01
충북	5.1	72.86	100.00	0.73	0.039	0.029	35.70	10.00	0.28	0.068	0.019	16.45
충남	5.0	71.43	100.00	0.71	0.039	0.028	55.90	10.00	0.18	0.068	0.012	15.75
전북	4.8	68.57	100.00	0.69	0.039	0.027	38.10	10.00	0.26	0.068	0.018	16.29
전남	4.7	67.14	100.00	0.67	0.039	0.026	38.10	10.00	0.26	0.068	0.018	15.72
경북	4.6	65.71	100.00	0.66	0.039	0.026	41.70	10.00	0.24	0.068	0.016	15.06
경남	4.9	70.00	100.00	0.70	0.039	0.028	35.80	10.00	0.28	0.068	0.019	16.56
제주	3.6	51.43	100.00	0.51	0.039	0.020	9.00	10.00	1.00	0.068	0.068	21.13

[부표 6] 제도 영역(1)

지역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2.78	2.60	1.00	0.040	0.040	0.43	0.59	0.72	0.054	0.039	0.44	0.37	1.00	0.028	0.028
부산	3.03	2.60	1.00	0.040	0.040	0.42	0.59	0.71	0.054	0.038	0.65	0.37	1.00	0.028	0.028
대구	2.63	2.60	1.00	0.040	0.040	0.25	0.59	0.42	0.054	0.023	0.46	0.37	1.00	0.028	0.028
인천	2.21	2.60	0.85	0.040	0.034	0.29	0.59	0.49	0.054	0.026	0.50	0.37	1.00	0.028	0.028
광주	3.46	2.60	1.00	0.040	0.040	0.39	0.59	0.66	0.054	0.036	0.97	0.37	1.00	0.028	0.028
대전	3.82	2.60	1.00	0.040	0.040	0.45	0.59	0.76	0.054	0.041	1.07	0.37	1.00	0.028	0.028
울산	2.77	2.60	1.00	0.040	0.040	0.30	0.59	0.51	0.054	0.027	0.85	0.37	1.00	0.028	0.028
세종	2.55	2.60	0.98	0.040	0.039	0.13	0.59	0.21	0.054	0.011	0.58	0.37	1.00	0.028	0.028
경기	2.24	2.60	0.86	0.040	0.034	0.29	0.59	0.50	0.054	0.027	0.54	0.37	1.00	0.028	0.028
강원	1.59	2.60	0.61	0.040	0.024	0.23	0.59	0.39	0.054	0.021	0.33	0.37	0.91	0.028	0.025
충북	1.75	2.60	0.67	0.040	0.027	0.25	0.59	0.43	0.054	0.023	0.33	0.37	0.89	0.028	0.025
충남	1.95	2.60	0.75	0.040	0.030	0.48	0.59	0.80	0.054	0.043	0.37	0.37	1.00	0.028	0.028
전북	1.97	2.60	0.75	0.040	0.030	0.18	0.59	0.31	0.054	0.017	0.35	0.37	0.97	0.028	0.027
전남	1.40	2.60	0.54	0.040	0.021	0.15	0.59	0.26	0.054	0.014	0.16	0.37	0.43	0.028	0.012
경북	1.73	2.60	0.66	0.040	0.026	0.29	0.59	0.50	0.054	0.027	0.32	0.37	0.88	0.028	0.024
경남	3.03	2.60	1.00	0.040	0.040	0.29	0.59	0.49	0.054	0.027	1.02	0.37	1.00	0.028	0.028
제주	1.53	2.60	0.59	0.040	0.023	0.29	0.59	0.48	0.054	0.026	0.11	0.37	0.29	0.028	0.008

[부표 기 제도 영역(2)]

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35.87	25.61	1.00	0.048	0.048	11.30	24.91	0.45	0.033	0.015
부산	17.03	25.61	0.66	0.048	0.032	8.84	24.91	0.35	0.033	0.012
대구	18.20	25.61	0.71	0.048	0.034	9.43	24.91	0.38	0.033	0.013
인천	14.20	25.61	0.55	0.048	0.027	11.20	24.91	0.45	0.033	0.015
광주	11.58	25.61	0.45	0.048	0.022	7.12	24.91	0.29	0.033	0.010
대전	8.08	25.61	0.32	0.048	0.015	11.66	24.91	0.47	0.033	0.016
울산	12.78	25.61	0.50	0.048	0.024	9.29	24.91	0.37	0.033	0.012
세종	29.74	25.61	1.00	0.048	0.048	14.07	24.91	0.56	0.033	0.019
경기	12.04	25.61	0.47	0.048	0.023	8.08	24.91	0.32	0.033	0.011
강원	14.78	25.61	0.58	0.048	0.028	17.09	24.91	0.69	0.033	0.023
충북	12.00	25.61	0.47	0.048	0.023	10.93	24.91	0.44	0.033	0.015
충남	9.72	25.61	0.38	0.048	0.018	12.96	24.91	0.52	0.033	0.017
전북	10.49	25.61	0.41	0.048	0.020	16.54	24.91	0.66	0.033	0.022
전남	17.79	25.61	0.69	0.048	0.033	16.26	24.91	0.65	0.033	0.022
경북	11.56	25.61	0.45	0.048	0.022	14.19	24.91	0.57	0.033	0.019
경남	12.52	25.61	0.49	0.048	0.024	11.21	24.91	0.45	0.033	0.015
제주	8.61	25.61	0.34	0.048	0.016	12.96	24.91	0.52	0.033	0.017

[부표 8] 제도 영역(3)

지역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영역점수
	통계값	환산값 (100점)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3.13	62.69	81.64	0.77	0.021	0.016	6.12	9.352	0.65	0.025	0.017	20.3
부산	3.31	66.15	81.64	0.81	0.021	0.017	5.68	9.352	0.61	0.025	0.015	18.2
대구	3.22	64.47	81.64	0.79	0.021	0.017	4.70	9.352	0.50	0.025	0.013	16.6
인천	3.07	61.49	81.64	0.75	0.021	0.016	4.08	9.352	0.44	0.025	0.011	15.6
광주	2.93	58.63	81.64	0.72	0.021	0.015	4.01	9.352	0.43	0.025	0.011	16.1
대전	3.35	66.94	81.64	0.82	0.021	0.017	8.47	9.352	0.91	0.025	0.023	18.0
울산	2.94	58.90	81.64	0.72	0.021	0.015	6.09	9.352	0.65	0.025	0.016	16.3
세종	3.28	65.59	81.64	0.80	0.021	0.017	13.13	9.352	1.00	0.025	0.025	18.8
경기	3.18	63.67	81.64	0.78	0.021	0.017	6.17	9.352	0.66	0.025	0.017	15.6
강원	2.82	56.44	81.64	0.69	0.021	0.015	5.48	9.352	0.59	0.025	0.015	15.1
충북	3.18	63.66	81.64	0.78	0.021	0.017	6.94	9.352	0.74	0.025	0.019	14.7
충남	3.28	65.59	81.64	0.80	0.021	0.017	13.13	9.352	1.00	0.025	0.025	17.9
전북	3.08	61.56	81.64	0.75	0.021	0.016	7.89	9.352	0.84	0.025	0.021	15.3
전남	3.39	67.77	81.64	0.83	0.021	0.018	8.12	9.352	0.87	0.025	0.022	14.2
경북	3.02	60.39	81.64	0.74	0.021	0.016	4.49	9.352	0.48	0.025	0.012	14.6
경남	3.20	63.93	81.64	0.78	0.021	0.017	5.43	9.352	0.58	0.025	0.015	16.4
제주	3.03	60.61	81.64	0.74	0.021	0.016	4.73	9.352	0.51	0.025	0.013	12.0

[부표 9] 지자체 관심도 영역(1)

지역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담당조직 유무							
	통계값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담당조직 형태	비상설 기구개수	비상설 기구 추가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1.00	0.049	0.049	3.15	19.872	0.158	0.083	0.013	0.50	2	0.02	0.54	1.10	0.49	0.057	0.028
부산	1.00	0.049	0.049	7.11	19.872	0.358	0.083	0.030	1.00	2	0.02	1.04	1.10	0.95	0.057	0.054
대구	1.00	0.049	0.049	3.02	19.872	0.152	0.083	0.013	0.50	2	0.02	0.54	1.10	0.49	0.057	0.028
인천	0.50	0.049	0.025	3.61	19.872	0.182	0.083	0.015	0.50	2	0.02	0.54	1.10	0.49	0.057	0.028
광주	0.50	0.049	0.025	3.74	19.872	0.188	0.083	0.016	0.25	1	0.02	0.27	1.10	0.25	0.057	0.014
대전	1.00	0.049	0.049	4.23	19.872	0.213	0.083	0.018	0.50	2	0.02	0.54	1.10	0.49	0.057	0.028
울산	0.50	0.049	0.025	3.52	19.872	0.177	0.083	0.015	0.00	1	0.02	0.02	1.10	0.02	0.057	0.001
세종	1.00	0.049	0.049	6.18	19.872	0.311	0.083	0.026	0.75	1	0.02	0.77	1.10	0.70	0.057	0.040
경기	1.00	0.049	0.049	4.16	19.872	0.209	0.083	0.017	1.00	1	0.02	1.02	1.10	0.93	0.057	0.053
강원	0.50	0.049	0.025	1.78	19.872	0.090	0.083	0.007	0.00	1	0.02	0.02	1.10	0.02	0.057	0.001
충북	0.25	0.049	0.012	3.22	19.872	0.162	0.083	0.014	0.50	1	0.02	0.52	1.10	0.47	0.057	0.027
충남	1.00	0.049	0.049	6.18	19.872	0.311	0.083	0.026	0.00	1	0.02	0.02	1.10	0.02	0.057	0.001
전북	0.50	0.049	0.025	5.68	19.872	0.286	0.083	0.024	0.00	1	0.02	0.02	1.10	0.02	0.057	0.001
전남	1.00	0.049	0.049	3.91	19.872	0.197	0.083	0.016	0.50	2	0.02	0.54	1.10	0.49	0.057	0.028
경북	0.50	0.049	0.025	2.28	19.872	0.115	0.083	0.010	0.00	1	0.02	0.02	1.10	0.02	0.057	0.001
경남	1.00	0.049	0.049	5.93	19.872	0.298	0.083	0.025	0.75	1	0.02	0.77	1.10	0.70	0.057	0.040
제주	0.50	0.049	0.025	3.39	19.872	0.171	0.083	0.014	0.50	1	0.02	0.52	1.10	0.47	0.057	0.027

[부표 10] 지자체 관심도 영역(2)

지역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영역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1.901	13.752	0.138	0.017	0.002	3.42	28.06	0.12	0.021	0.003	9.51
부산	2.623	13.752	0.191	0.017	0.003	4.82	28.06	0.17	0.021	0.004	13.95
대구	1.467	13.752	0.107	0.017	0.002	4.83	28.06	0.17	0.021	0.004	9.51
인천	0.869	13.752	0.063	0.017	0.001	4.81	28.06	0.17	0.021	0.004	7.23
광주	4.202	13.752	0.306	0.017	0.005	8.22	28.06	0.29	0.021	0.006	6.57
대전	1.490	13.752	0.108	0.017	0.002	5.03	28.06	0.18	0.021	0.004	10.04
울산	0.155	13.752	0.011	0.017	0.000	7.07	28.06	0.25	0.021	0.005	4.59
세종	0.170	13.752	0.012	0.017	0.000	16.04	28.06	0.57	0.021	0.012	12.71
경기	1.037	13.752	0.075	0.017	0.001	6.76	28.06	0.24	0.021	0.005	12.56
강원	1.167	13.752	0.085	0.017	0.001	13.18	28.06	0.47	0.021	0.010	4.46
충북	2.926	13.752	0.213	0.017	0.004	17.14	28.06	0.61	0.021	0.013	6.93
충남	0.170	13.752	0.012	0.017	0.000	16.25	28.06	0.58	0.021	0.012	8.87
전북	0.951	13.752	0.069	0.017	0.001	19.41	28.06	0.69	0.021	0.015	6.54
전남	0.961	13.752	0.070	0.017	0.001	24.06	28.06	0.86	0.021	0.018	11.29
경북	0.730	13.752	0.053	0.017	0.001	16.79	28.06	0.60	0.021	0.013	4.89
경남	1.576	13.752	0.115	0.017	0.002	14.79	28.06	0.53	0.021	0.011	12.69
제주	1.254	13.752	0.091	0.017	0.002	6.52	28.06	0.23	0.021	0.005	7.21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2021년 12월 12일 인쇄

2021년 12월 14일 발행

발행인 : **이 정 식**

발행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 국번없이 1350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92000-000645-14